"여수이야기 선생님 오신다" 설레는 초등생들

9명 오늘 학교 첫 파견… 역사·문화 눈높이 수업

여수의 역사와 문화 등 스토리를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춰 제공하는 '여수이야기 선생님'들이 처음으로 일선 학교에 배치된다.

여수시는 지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여수이야기 선생님 9명을 4일부터 초등학교에 파견한다고 밝혔다.

초등학생의 눈높이에 맞춘 여수이야기 선생님 프로그램은 지역 어린이들이 여수에 대해 잘 알고, 자긍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40분 수업과정이며 여수의 역사와 호국, 사랑, 미래라는 큰 주제로 아이들과 함께하는 참여수업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미 지역의 초등학교 3~4학년 27개교 130학급의 수업 신청을 받은 상태로 본격적인 수업을 실시하기 전부터 인기를 모으고 있다.

여수이야기 선생님들은 여수시가 지난해 교과부의 지원을 받아 실시한 '여수이야기 선생님 양성과정' 수료자 중 소정의 평가과정을 거쳐 선발됐다. 이들은 지난해 4개월 동안 초등학교 3~4학년 눈높이에 맞춘 교과 과정을 만들고 효과적인 교수법에 대한 연구를 자체적으로 실시했다.

개발된 교육과정은 이미 30회의 시범수업과 5차례의 평가수업을 거쳐 수정 보완됐다.

장민숙 여수이야기 선생님은 "6개월 동안 9명의 여수이야기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면 아이들과 재미있고 흥미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을지 수없이 고민하고 토론하며 수업을 준비해왔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여수시 관계자는 "여수이야기 수업을 통해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애향심과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수업평가를 거쳐 다른 학년으로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여수이야기 수업과 관련한 문의는 여수시 교육지원과 평생학습관(061-690-2345)으로 하면 된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종이팩 가져오면 화장지 드려요

광양시 이달부터… 종이컵·폐건전지 교환 행사도

광양시가 종이팩을 가져오면 친환경 재생 화장지로 바꿔주는 행사를 이달부터 실시한다.

종이팩이란 100% 수입에 의존하는 천연펄프를 주원료로 만든 포장재로 우유팩, 두유팩, 주스팩, 기타 음료팩 등이 해당된다.

펄프화 과정에서 녹아서 분리되는 시간의 차이로 일반종이와 혼합 배출되는 경우 재활용되지 못하고 폐기물로 처리되는데 폐종이팩의 70%가 일반 폐지와 혼합 배출되면서 재활용률이 극히 저조한 편이다.

우리나라에서 배출되는 연간 7만t의 종이팩을 만들기 위해서는 20년생 나무 140만 그루가 필요하고, 이는 1년간 25만명이 숨 쉴 수 있는 산소가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폐종이팩 재활용만 잘해도 연간 105억원의 경제적 비용을 회수 할 수 있으며, 1750만명이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50m 화장지 2억1000롤을 만들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재활용 분리배출 활성화 차원에서 사용후 종이팩을 모아오면 화장지로 교환해주는 '종이팩 화장지 교환'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사용 후 남은 종이팩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뒤 펼쳐서 건조해 광양읍·중마동·광영동·금호동 사무소로 가져오면 1000㎖ 15매, 500㎖ 30매, 200㎖ 80매 당 화장지 1롤로 교환해 준다.

또한 종이팩과 성질이 비슷한 종이컵도 250매당 화장지 1롤,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재활용이 중요한 폐건전지 1kg당 화장지 1롤로 교환해 주는 사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교환사업을 계기로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활성화되고 주민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자원 절약이 생활화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여수 소호~용주 왕복 4차선 개통

여수시가 수려한 경관을 보유한 여수화양지구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 건설해 온 소호~용주 간 왕복 4차선 도로가 3일 개통됐다.

여수시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총 15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총 연장 1850m에 폭 25m의 소호~용주 간 도로가 이날 개통됐다고 밝혔다.

화양면과 여수시내권을 잇는 소호~용주 간 도로는 왕복 2차선으로 도로가 좁고 경사가 심해 그동안 이용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여수시는 이번 왕복 4차선 도로 개설로 지역 주민들과 화양지구를 찾는 관광객들의 불편이 해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이번 개통으로 소호동에 위치한 오션리조트와의 접근성이 좋아지고 국가지원지방도 22호선과도 바로 연결되면서 물류비 절감 등 경제효과도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수시 김영옥 도로과장은 "앞으로도 지역민의 편의와 지역발전을 위한 균형있는 도로확장 및 개설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천만송이 세계 명품장미 한자리서 본다

곡성 섬진강기차마을서 내달 24일 세계장미축제

"천만송이 세계 명품장미, 그 향기 속으로 초대합니다."

'제3회 곡성세계장미축제'가 오는 5월 24일부터 6월 2일까지 10일간 섬진강기차마을 1004장미공원에서 열린다.

'향기, 사랑 그리고 꿈'을 주제로 펼쳐지는 올해 축제는 세계장미협회가 선정한 유럽 및 미국 등 세계 우수 장미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

축제는 장미커플 선발, 사랑소원을 이루는 장미하트 달기, 스마트폰 미션 등 85개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야간에도 아름다운 장미를 관람할 수 있도록 빛과 장미가 어우러지는 '천사 사랑빛' 거리를 조성해 여름밤 향기로운 장미향기에 맘껏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곡성군은 장미축제에 선보일 화려하고 아름다운 장미 수천만 송이를 관리하느라 겨울 내내 심혈을 기울였다.

곡성군 관계자는 "아름다운 장미는 물론이고 축제 프로그램도 더욱 알차게 구성해 한번 찾은 고객이 감동을 받고 또 찾고, 입소문이 전국으로 퍼지는 그런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계장미축제에 앞서 다음달 1일부터 5일간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 대축제'도 열린다.

이 축제는 군민의 날 행사, 제91회 어린이 날 행사 등 다채롭게 꾸며진다. 섬진강 철길따라 20리의 화려한 명품 철쭉길 등이 조성돼 관광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한다.

/곡성=김계중기자 kjkim@

지난해 열린 곡성세계장미축제 모습. 올해는 야간에도 즐길 수 있는 '천사 사랑빛 거리'가 조성된다.

보성, 전군민 걷기 '1530운동' 호응

1주일에 5일 하루 30분 걷기

보성군이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1530 운동'이 호응을 얻고 있다.

3일 보성군에 따르면 새봄을 맞아 지난달부터 보성읍 등 6개 읍·면을 시작으로 대대적으로 '1530 군민 걷기 운동'을 추진해 건강하고 활기찬 지역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1530 운동'이란 건강을 위해 1주일에 5일을 하루 30분 이상 걷자는 의미로 보건소와 함께 주 3일 걷고, 2일은 스스로 동네를 돌며 1주일 5일 걷기 운동을 하자는 뜻이 담겨 있다.

걷기 운동은 체지방 감소와 근육량을 증가시켜 비만과 건강유지에 좋으며 자체 체중을 이용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자연스러운 운동으로 계절에 관계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소모되는 칼로리는 적지만 심폐기관에 안정적이며 다리와 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나 노인에게도 적합한 운동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속 걷기에 많은 군민을 참여시켜 전 군민이 걷기를 생활화함으로써 행복하고 건강한 보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백기자 kyb@kwangju.co.kr

전북

"친구 싸울때 구경만 해도 학폭 공범"

'1학교 1고문 변호사제' 전주 완산여고서 첫 선

"싸움이 일어났을 때 이를 방관하거나 망을 봐주는 것만으로도 학교폭력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1학교 1고문 변호사 제도'가 전주시 완산여고에서 첫선을 보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3일 학교변호사 780명이 전국 학교에서 '행복한 학교, 우리 함께 만들어요'라는 주제로 학교폭력 예방 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지난해 11월 한국교총과 대한변호사협회가 협력해 시작한 '1학교 1고문 변호사 제도'의 첫 활동이다.

이에 따라 이날 완산여고에서 열린 홍요셉 고문 변호사의 특강을 시작으로 8일 충북 제천중 김기용 고문 변호사 등 전국 780명의 고문 변호사들이 특강 릴레이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이번 특강에는 학생과 교사 등 240여명이 참여해 학교폭력의 주요 유형과 민형사상 처벌 규정, 폭력 유형별 대처요령 등 학교폭력에 관한 법률 지식과 올바른 대처 방법을 경청했다.

홍요셉 고문변호사가 3일 전주 완산여고에서 학교폭력 예방 강연을 하고 있다.

홍요셉 변호사는 특강에서 "학교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과 당하는 사람이 따로 있지 않다. 누구든 자신도 모르는 사이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고 피해를 볼 수도 있다"면서 "학교폭력은 상대방을 얕보거나 미워하는 마음에서 시작한다. 학교폭력이 없는 학교가 되려면 먼저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학생들에게 당부했다.

강연에 참석한 유지애(17) 양은 "싸움이 일어났을 때 구경만 해도 공범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처음 알게 됐다"면서 "학교 폭력이 큰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주=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이주여성 한국어 교육·안전 정착 도움

정읍 다문화마을학당 인기

정읍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오은경)가 지난 1일부터 '다문화마을학당' 운영에 들어갔다.

다문화 마을학당은 신태인(신태인, 정우, 감곡), 칠보(칠보, 옹동), 산외(산내, 산외)에 개설됐으며 이곳에서는 현재 20여명의 이주여성들이 한국어와 부모역할 교육 및 자녀양육 등에 관한 교육을 받고 있다.

교육은 주 2회 회당 2시간씩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영원학당(이평, 영원지역)과 소성학당(고부, 소성지역)에도 추가로 운영할 예정이다.

학당은 연중 운영되고, 참가비는 무료다. 희망자는 언제든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531-0309)로 방문 또는 전화 신청하거나 상담하면 된다.

오은경 센터장은 "이주여성들을 위한 교육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개인별 사례관리를 통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이주여성들의 배움 욕구를 충족시키고 안정적인 정착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최신 농업용 기계 다 모였네 최신형 농업용 기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2013 익산 농업기계박람회'가 3일 익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개막한 가운데 관람객들이 농기계를 살펴보고 있다. 전북도와 익산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 공동 주최한 이번 박람회는 5일까지 계속된다. /연합뉴스

새만금서 '말 마라톤' 열린다

다음달 3일 승마대회… 200마리 출전

방조제 완공 등으로 맨땅이 드러나 광활한 풍광을 자랑하는 새만금 일대에서 이색적인 말(馬) 마라톤 대회가 펼쳐진다.

전북도는 다음달 3일부터 사흘간 새만금관광지구(9.9㎢)에서 '제1회 전국 지구력 승마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국민생활체육 전국승마연합회 주관으로 펼쳐지는 이번 대회에서는 말 200여 마리가 출전해 지구력과 순발력을 겨룬다.

첫날인 3일에는 장애물 경기가, 4~5일에는 10km, 20km, 40km 거리의 마라톤 경기가 열린다.

이 대회에는 선수와 동호인 등 관계자 800여명도 참석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사람이 아닌 말의 지구력을 테스트하는 이색 경기"라면서 "짜릿하고 박진감 넘치는 익스트림 스포츠의 진수를 보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주=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단신

남원, 6일 지리산둘레권역 용궁 산수유축제

남원시 주천면 용궁·장안리 일대에서 6~7일 제4회 지리산둘레권역 용궁 산수유축제가 열린다.

이곳에는 200년~800년 된 산수유 나무 1만여 그루가 자생하면서 마을 전체가 온통 노란 물결로 장관을 이룬다.

6일에는 기원제를 시작으로 산수유 그림그리기 대회, 농악단 풍물놀이, 에델바이스공연, 산수유꽃길·돌담길 걷기 등이 열린다.

7일에는 산수유 프린지페스티벌, 노래자랑, 산수유 그림전시가 열리며 해초두부, 도토리묵, 허브 만들기 등 체험행사도 마련됐다. 행사기간 지역 농특산물 판매장에서는 산수유로 만든 식품 등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다.

/남원=백선기자 bs8787@

정읍,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 운영

정읍시가 산불이 잦은 청명·한식(4월 5일)을 전후해 산불방지를 위한 비상근무를 한다. 시는 청명, 한식, 주말이 이어져 성묘객, 상춘객, 등산객이 급증해 산불 우려가 크다며 5~14일을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 기간 산림녹지과 전 직원, 읍면동 직원의 절반, 실·과·소 직원의 4분의 1을 특별근무조로 편성해 비상근무한다. 또 산불감시인력 124명(산불감시원 82명, 산불진화대 42명)을 산불 취약지에 배치하고 순찰을 강화한다. 정읍시는 "산림 인접지에서 논밭두렁이나 쓰레기를 태우거나 산에 인화물질을 가져가는 등의 행위를 절대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고창 수박·복분자, 부안쌀 국가브랜드 대상

고창 수박과 복분자, 부안 쌀이 2013년 국가브랜드 대상을 받았다.

이들 특산품은 중앙일보 이코노미스트가 주관한 소비자와 전문가 평가에서 점유율, 경영성과, 브랜드 인지도, 대표성, 만족도, 충성도, 경쟁력 등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다.

수상한 브랜드는 고창황토배기 'G수박', 고창복분자 '선연', 부안쌀 '천년의 솜씨'다.

고창특산품인 수박과 복분자는 GAP(우수농작물관리제도)시설, 비파괴 당도검사 등의 최신 생산·선별 시스템을 적용해 국내 최고 품질로 인정받는다. 부안 쌀은 계화·하서·동진 간척지에서 수확한 쌀 가운데 엄선해 GAP 인증을 받은 최고급 쌀이다.

/고창=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완주, 로컬푸드 직매장 카풀주차장 개장

완주군은 최근 급격히 증가한 로컬푸드 직매장 고객 등을 위해 용진면에 카풀주차장을 개장했다고 3일 밝혔다.

용진파출소 인근에 들어선 카풀주차장은 잔디 포장으로 승용차 60여 대를 주차할 수 있고 가로등도 설치됐다.

특히 봉동, 고산, 운주면 등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의 이용도 활발할 것으로 보인다.

완주군은 "로컬푸드 직매장 인근의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직매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완주=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